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강론

관리인직 주일: 2022년 9월 18일

루가 복음 16장 1절-13절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교 성당에서 한번 아침 일찍 미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들의 주의를 끄는 아주 재치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분은 강론중에 5 센트, 10 센트, 1a 센트짜리 동전들이 들어 있는 작은 자루를 성당의 대리석 바닥에 쏟았습니다. 동전들은 때구르르 쟁그랑 소리들을 내며 여기저기 굴러 갔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졸고 있던 사람들은 재빨리 잠에서 깨어났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세속적인 것에 불과한 돈과 부유함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요점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굴러가는 보잘것없는 동전들을 가지기 위해, 단지 물질적인 재물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에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와 창의력을 쏟아 붓습니다. 위대한 계획으로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짧은 시간을 포함해서, 성체 성사를 비롯한 여러 성사의 은총, 하느님의 나라에의 초대와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은, 별로 가치가 없거나 혹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지능과 지혜와 예리한 통찰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하느님의 종들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특히 오늘 대교구 전체가 관리인직이라는 위대한 선물에 대해 성찰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들은 관리인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라는 선물을 맡은 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삶과 시간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들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신앙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신을 섬기거나, 전혀 신이 없다거나,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훨씬 하찮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용하는 창의력과 에너지를 지혜롭고 빈틈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동안 이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지혜 안에서 관리직을 이해하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라는 선물과 함께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지혜는 "보라, 판단하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상황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 예리하고, 상황 판단을 빠르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우리의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섬기는 것처럼, 적어도 효과적이고 창의적이며 현명하고 빈틈없이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큼이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 주님께 빛을 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는, 복음속의 관리인처럼 단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곧 해고 당할 것과 그 순간이 빨리 올 것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로부터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에 **그리스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감스러워 하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함께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 1 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예언자 아모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무게를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은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선물들을 사용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이며 잘 사용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는 별들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판단을 말합니다. 물론 복음속의 관리인은 비뚤어지고 부정직하였으며 하느님은 그것에 대해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보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속의 관리인이 비록 가치가 없는 목적을 위해서였지만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가치가 없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두번째 독서와 복음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원칙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모든이들이 구원되기를 바라시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지식을 바라시는 우리 구세주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는 오직 한분의 중재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 모든이들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신 인간이십니다.

- 이것은 적절한 시기에 증명이 되었습니다”이것을 위해 저는 신앙과 진리에 관한 이방인의 스승, 전령관,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판단함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관리인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정직한 관리인에 대해 한가지 칭찬을 한 것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그는 조만간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빨리 빠져나오기 위해 지능의 은총을 사용하여 약썩빠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판단이었지만,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론을 시작했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단지 때구르르 쟁그랑 동전들,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위해 대단한 창의력을 사용합니다. 이 관리인은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감탄할 만한 날카로움, 지혜, 지식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창의력과 달란트를, 적어도 물욕의 지배를 받는 종들과는 달리,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의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관리인은, 현실이 부패했다고 판단한 원칙을 통해 그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고, 효과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원인이 나쁜긴 했어도 나쁜 목적을 위해 나쁜 원칙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위해 효과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오랫동안 복음화운동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온 우리를 안내하는 빛이요 원리이자 방법입니다.

오늘 주일은, 대교구에 걸쳐 관리직에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관리인이 한 것처럼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선의를 위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의 봉사를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이기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판단한 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신중하고 명료하며 창조적으로 행동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현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당을 돌아봅시다. 신자들이 서로 서로 굳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 봅시다. 신자들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고, 본당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대교구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이번 관리인직 주일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복음에 따라 판단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